“불가촉천민, 인구조사시 ‘불교’ 선택해야”

인도 전문가들, 계급타파 위해 제언

박정현 객원기자

인도의 전통적 계급 제도인 카스트 제도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천민(Untouchable)’인 달리트(Dalit)들에게 그들의 종교로 ‘불교’를 선택하라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의 7월 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의 암베드카라이트 국제공동학회(Ambedkarite International Co-ordination Society, 이하 AICS)는 7월 23일(현지 시간) 열린 ‘달리트를 위한 2021년 인구조사’라는 제목의 웨비나(Webina, 인터넷상의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평등사상을 중시하는 불교도의 증가를 통계적으로 나타냄으로써 국가 지도부에게 달리트들의 계급 타파 의지를 관철하자는 취지다.

인도는 2018년 기준 약 13억5300만 명 인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13억9300만 명에 이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다. 인도 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확한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조만간 2021년 인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달리트는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최하위 계급인 ‘수드라(Sudra)’에도 속하지 못한다. 상류층인들은 막대한 특권을 누리는 반면, 달리트들은 갖은 탄압과 핍박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도 역사에서 불교도는 카스트제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편으로 여겨졌다. 시초는 1949년 인도의 독립헌법을 초안한 달리트 출신의 지도자이자 현대 인도불교의 중흥자로 꼽히는

AICS, 인터넷 세미나에서
내년 인구조사 관련 주장
“불교도 증가 통계수치로
지도자들 인식 변화 유도”

암베드카르(Dr. B. R. Ambedka)박사다. 암베드카르는 1956년 약 50만 명의 달리트와 함께 불교로 개종해 카스트 제도에 도전했다. 그 후 수많은 달리트들이 불교로 개종하는 이른바 ‘달리트 불교 개종 운동’이 이어졌다.

암베드카르의 기조를 바탕으로 설립된 인권단체 만스쿠 트러스트(the Mansku Trust)의 담마다르시(Dhammadarshi) 언론홍보 담당관은


인도의 전문가들이 불가촉천민인 달리트들에게 불교를 종교로 선택하라고 제안했다.
사진출처=deccanherald.com

2017년 개종식을 언급하면서 “만행을 겪은 우리 민족은 불교로 전환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의 근원이 그들의 정체성(계급)임을 알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달리트와 불가촉천민으로 남아 있는 한 굴욕과 차별,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인도의 불교 지도자들은 오는 인구조사가 불교로 전환하는 달리트들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2011년 인구조사에서 인도 인구의 약 1퍼센트 미만이 불교도에 불과했다.

G.C. 카울 박사는 이날 웨비나에서 “암베드카르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인 6명 중 1명으로 여겨진다. 그는 ‘달리트가 어떻게 아리안협회(Aryan Society)라는 단체에 의해 불가촉천민으로 분류됐는지’ 등을 증명했다”며 “21년 동안 모든 종교를 심층 연구한 결과 그는 새 종교를 창조하는 대신, 평등과 정의, 보다 넓은 인문주의의 토대를 가진 불교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AICS 창립멤버 찬찰 몰(Chanchal Mall)도 “달리트들은 공문서 작성 시 별도의 종교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인구조사에서 불교도로서 등록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암베드카르 박사 기념 위원회장 쿠시윈더 쿠마 빌라 등도 이 같은 움직임이 지역사회와 국가 지도자들에게 명확히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日불상연구가, 코로나 종식 발원 불상 조성

현재 4000여구 이상 완료
8월까지 6천구 조성 발원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하며 조성된 불상들을 보이는 사카노씨.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코로나 19의 종식이 요원한 가운데, 일본에선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 19의 조기종식을 발원하며 불상을 조성하고 있는 남성이 있어 화제다. 지난 7월 21일,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동료들과 함께 6천구의 불상을 조성하고 있는 사카노 카오루씨의 불사를 보도했다.

일본 사카이(堺)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카노 카오루씨는 ‘엔쿠불(円空佛)’이라고 불상을 연구하는 연구가다. 엔쿠불은 에도시대 초인 17세기 중순, 일본 각지를 유행하며 불상을 조성한 엔쿠스님(1632-1695)의 불상을 말한다. 사카노씨는 “10여년전, 중증의 심근경색으로 시한부의 삶을 선고받고 요양중이던 나라(奈良)에서 엔쿠불을 만났다”며 연구를 시작한 계기를 전했다.

엔쿠불은 일본 불교미술에서는 민간불교신앙의 중요한 장르로 꼽히는 불상이다. 천태종의 스님이었던 엔쿠스님이 행각 중에 서민들이 불보살님을 예경하는데 사찰에 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곤 나무토막에 최소한의 조각만으로 불보살의 모습을 조성해 모시게 한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 이후 엔쿠스님은 일본 전국을 유행하며 10만구의 불상 조성할 것을 발원했고, 현재 약 5,400구의 불상이 엔쿠스님의 진품으로 현존하고 있다.

사카노씨는 “엔쿠스님의 인생에 큰 감명을 받았다. 당시 시한부 인생에서 ‘죽기 전에 무엇인가 해보자’는 마음에 엔쿠불을 연구하고 직접 조각하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독학으로 배운 목조각에 오랜 연구에 기반한 첫 엔쿠불은 관세음보살이었다. 이후 기적적으로 병석에서 일어난 사카노씨는 엔쿠불을 연구하고 조성한 공덕으로 병이 나았다고 믿고 있다.

사카노씨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 엔쿠불을 조성하고 있다. 사카노씨는 “코로나 19로 유명을 달리한 이들을 추모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장보살을 택했다”고 말했다. 현재 완성된 불상은 약 4천여 구. 오는 8월까지 6천구 이상의 지장보살을 동료들과 함께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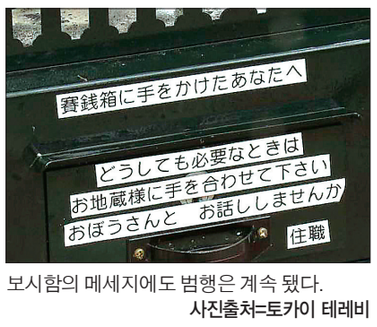
日 사찰, 계속되는 불전함 도둑에 곤란

다이호지, 상습 도난사건
주지 스님 “범인에 자비”

타종교시설들에 비해 보안과 도난사건에 취약한 사찰. 일본의 사찰들도 상습적인 불전함 털이범들로 곤란을 격고 있다. 한편 상습적인 도난사건에 골치를 앓으면서도 범인을 자비로 감싸겠다는 사찰이 있어 화제다. 지난 7월 26일 일본의 ‘토카이 테레비’ ‘FNN 프라임 온라인’ 등의 언론들은 도난사건의 경위와 사찰의 대응을 보도했다.

일본 아이치(愛知)현 아이사이(愛西)시에 소재한 ‘다이호지(大法寺). 500여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정토종의 고찰로, 예로부터 악연을 끊어내는 영험으로 유명한 사찰이다. 또 아이사이시내에서 최초로 수목장을 진행한 사찰로도 지역에서 이름 높다.

그러나 다이호지는 오랫동안 상습적



보시함의 메세지에도 범행은 계속 됐다.
사진출처=토카이 테레비

인 불전함 도난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 주지인 하세오 렌게 스님은 “오랫동안 불전함의 보시금이 도난당해 왔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필요하여 가져 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그동안 알면서도 모르는 채 넘겨왔다”고 설명했다.

도난사건이 일어나는 불전함은 사찰의 마당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에 봉안한 지장보살상 앞에 서있다. 향로와 촛대가 설치되어 있는 이 철제 불전함은 참배객들이 보시금을 넣고 초와 향을 지장보살님께 공양할 수 있는 구조로 세워졌다. 야외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세워진 불전함이니 만큼 보안에 취약한 상태다.

주지스님은 상습적인 도난사건에 불전함에 메시지를 붙여 두기까지 했다. “불전함에 손을 대려는 당신. 어떻게든 돈이 필요하다면 먼저 지장보살님께 손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스님과 이야기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렌게 스님은 “설사 보시금 도둑이라 할지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켜보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그럼에도 상습 범행에 결국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방범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이호지 측은 “빈번한 범행에 결국 올해 1월에 적절한 해제조치 없이 불전함을 열었다간 방범부저가 울리는 장치를 설치했다. 그러나 2월에 방범부저 기계채로 도난당했다”고 경위를 피해사실을 밝혔다. 경찰 측은 “방범부저채로 훔쳐갔다는 것은 해당 기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는 뜻으로, 상당한 악질 상습범으로 보인다”고 추측하고 있다.

6월 19일 오전 1시경에 촬영된 방범카메라 영상에는 60~70대 가량의 남성이 드라이버로 자물쇠를 파손했으나 열리지 않자, 한동안 주변을 탐색한 후 불전함을 안고서 억지로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다이호지 측은 “홧김이었는지, 불전함은 본래의 자리에서 30m 가량 떨어진 풀밭에 던져져 있었고, 파손은 있었지만 보시금은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주지 렌게스님은 “보시금에까지 손을 대려는 건, 그만큼 힘들어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함께 이야기하고, 악연을 끊는 사찰인 만큼 그간의 악업을 끊어내는 기도를 하고서 함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 하고 싶다. 어떤 일이든 스님으로서 절에서 기다리겠다”며 자비로운 모습을 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1700년 된 불상 훼손한 파키스탄인 체포


1700년 된 불상을 훼손한 건설 노동자들.
사진출처=pakistantoday.com

파키스탄 경찰이 지난 7월 18일(현지시간) 고대 인도-파트리아 왕조 시대 불교 사찰로서 유네스코문화유산인 탁트이바히(Takht-i-Bahi)에서 발견된 1700년 된 불상을 훼손한 건설 노동자 4명을 체포했다고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door)가 7월 24일 보도했다.

지역 경찰은 “불상을 훼손한 혐의로 건설업자 콰마르 자만(Qamar Zaman)과 건설 인부 암자드(Amjad), 알렘(Aleem), 살렘(Saleem)을 체포했다. 훼손된 불상의 조각도 회수했다”고 외신 매체 ‘텔레그래프(The Telegraph)’를 통해 전했다.

경찰은 SNS상에 공유된 훼손 당시 촬영 동영상을 통해 목격자와 경위 등을 특정할 수 있었다.

훼손 과정을 목격한 현지 주민들은 “공사 도중 발견된 불상이 망치를 든 건설 인부들에 의해 부서졌다. 그들은 한 종교 지도자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며 “그 종교 지도자는 불상을 가리켜 ‘비이슬람적’이라고 표현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지방자치의 고고학 부장인 압둘 사마드 칸(Abdul Samad Khan)은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고대 불상 발견 사실을 알리는 대신 이를 파괴하고 조롱하는 영상을 찍었다”며 “고고학적 가치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해 봐야 하지만, 고대 불상이 분명하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개탄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惠 행만** 합장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